

항공 일자리 5,000여 명 신규 채용한다

- 항공산업 정상화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최근 항공 수요 회복으로 전국 공항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인력과 기재 확충에 나서면서 항공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약 5,0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개요 >

(설립목적)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

(센터개소) 2018. 9. 6(목) 인천공항 T1 4층 / 2021. 8. 2.(월) 김포공항 KAC항공지원센터 2층

(운영형태) 4개 기관 공동운영(국토교통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요기능)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채용정보 수집, 일자리정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 일자리서비스 지원

- 이러한 항공산업 채용 수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지역별 릴레이 멘토링’을 확대운영하여 전국 항공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항공 분야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 또한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월 1회(채용의 날) 및 상시(1:1 기업 맞춤형 지원) 개최한다. 구직자와 전국 공항 내 상주기업 및 항공분야 중소기업 간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 5월부터는 ‘항공일자리 MEET-UP’ 행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 구직자와 국적항공사(인사담당자와 직무분야별 현직자)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기업별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 작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청년 인턴사업을 올해에는 **항공 분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공모하여 6월부터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의 사업장에서 270명에게 직무별 인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요기업(총 12개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한국공항, 에어코리아, 제이에이에스, CAE코리아

- 참여 청년에게는 기본소양 및 직무별 특화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실무 업무경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항공 일자리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항공산업 JOB FAIR(9월말, 인천공항 개최예정)’, 1:1 상시 맞춤 취업상담, 취업역량 강화 특강, 청년x항공업계 상생 간담회, 현직자 직무소개 e-매거진, 기업탐방, 현장 채용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예비 항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항공산업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갖도록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윤근	(044-201-4204)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1-4184)
			주무관	장기영	(044-201-4183)

